



一〇〇弱箱. 진짜 0 빛날 희망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날이에요. 일상의 현실과는 다른 그런 꿈 같은 세상을 그려주는 그림. 꿈과 현실의 경계가 헤아려지지 않는 그림. 꿈과 현실을 헤아려보면 그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. 그림 속의 현실은 꿈처럼 흐릿하게 흐르고, 그림 속의 꿈은 현실처럼 선명하게 보이네요. 그래서 그림 속에서 현실과 꿈이 만나는 순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.